

# 북한은 정말 고기를 못먹는가?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지난번 로자깬에 서울 반데라주의자 게시물을 올렸다가, 모 고닉의 댓글을 통해 반데라주의자 영상을 트위터에 포스팅한 이가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를 뿌린 것을 알게 됐다. 그 역덕(집회 인증했으니 방구석이라 표현하지는 않겠다.)은 "북한 돼지, 북한 돼지는 이렇게 마르는게 되는구나"라며 돼지 관련 포스팅을 했다. 엄청나게 마른 돼지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돼지도 헐벗고 굶주리며, 무조건적으로 못사는 곳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덕끼

@Ducky1699CBP

## 북한돼지

돼지가 이렇게 마르는게 되구나



조회 219천회

2022년 11월 03일 · 1:52 오후 · 에 [Twitter for Android](#) 앱을 통해

**3,867** 리트윗 **1,431** 인용한 트윗 **2,539** 마음에 들어요



m.bilibili.com/video/BV1Xz



bilibili



登录

下载 App



打开App，看更多精彩视频

猪家三兄弟入山一个月后



好梦空间



물론 이것은 거짓정보였다. 사실 원글은 1년 전 중국 Ucc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원글에 북한이라는 내용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으며, 그 사진은 당시 국내에서도 "다이어트 성공한 돼지" "말라빠진 돼지" 등의 제목으로 올라왔던 적이 있을 정도였다. 무튼 해당 사진은 북한의 돼지가 아니며, 중국의 다이어트 돼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정보를 뿌렸음에도 트위터 방구석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북한에서는 돼지조차도 밥을 못먹는다거나, 북한에는 돼지가 김정은과 저 돼지 뿐이라거나, 북한에서 살찐 돼지는 김정은 뿐이라는 식의 반응들이 난무했다. 이들의 인식에는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헐벗고 굶주려야 하며, 탈북자들이 하는 거짓말들이 북한의 현실인 것이나 다름 없다.

그동안 개성공단이 북한에 의해 무단으로 가동되었다는 말 자체는 몇번 나왔지만, 나름 북한 관련해서 믿을만한 소스 중 하나인 RFA에서 이를 확인한 건 이례적입니다.

명분은 '김정은 하사품' 으로 주어질 학생들의 교복 생산. 원래 교복을 찍어내던 황해북도 지역 공장이 마비되자 우리 측 협의도 없이 멋대로 공장 가동시켜서 교복 찍어낸 겁니다. 교복 이외에도 간부용 고급 의류 등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깃 옷 몇벌 생산도 힘들어해서 남이 지어준 공장 멋대로 뺏아서 만드는 꼴이 참 한심할 뿐입니다. 한때는 무상공급이 당연했던 교복도 이젠 '김정은동지의 선물' 이라고 포장하는 꼴을 봐도 북한이 얼마나 몰락했는지 견적이 나오지만요.

 21 ...  12



필자는 예전에 모 방구석 역덕의 게시글 중에 북한 관련 정보로 믿을 만한 소스가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방구석 역덕들이 자유아시아방송이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를 뿌렸는지는 1도 생각지 않는다는 걸 진심으로 알 수 있었다. 북한 사회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악마화해야하니, 미국 선전기관이 가짜뉴스를 뿌려도 일단 믿고 보는 역덕들의 인식은 말 그대로 신념화된 반복주의가 저지르는 일종에 오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인식하는 북한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북한에서 소고기 먹으면 총살이예요와 같은 식의 인식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반북주의와 반공주의가 차고 넘치는 유튜브 채널인 BODA의 경우 이러한 악의적 거짓선전을 퍼나르기 바쁘다.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굶주린다고 생각해야 하니, 소고기를 먹으면 총살이라는 웃기는 헛소리들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들의 인식에는 북한은 아직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멈춰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경제적 우월성을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사회가 북한보다 식량이 풍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를 부끄러운 수준으로 원시시대화 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사람이 사는 사회다. 우리처럼 웃기도 하고, 밥도 먹고, 여가시간도 즐긴다. 식량생산도 고난의 행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 한번 아래의 인용문을 보도록 하자.

북 전문가인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2016년 5월 통일뉴스 기고에서 벨라이 데르자 가가 FAO 북 사무소 대표가 2014년 북의 곡물수확량이 600만톤에 달하고 3~4년 뒤면 식량 자급자족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면서 북이 매년 500만톤 이상의 식량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은 확실하다 북은 내부적으로 650만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 5개년전략 기간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해 식량 자급자족량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4,27 시대연구원 공저, 북바로알기 100문 100답(1), 사람과 사상, 2019, p.80

북한의 식량 자급률은 90%에 달하며, 2014년 기준으로 식량 총 공급량이 1,142만 6,700톤인데 비해 총수요량은 903만 8,300톤이었다. 옥수수, 쌀, 밀 등 곡류는 107만 8,300톤이 부족했지만, 어류와 육류는 총공급량이 총수요량보다 **45만 3,800톤** 많다고 추정됐다. 물론 우리보다는 미약한 숫자지만, 식량자급률이 **90%**를 넘는다는 점에서 자급자족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육류 소비량은 어떨까?

고난의 행군 이전 육류 소비량은 1961년 7.4kg과 1971년 9.2kg, 1981년 13.9kg, 1991년 17.0kg였던 것으로 나온다. 2002년의 경우 육류별로는 돼지고기가 8.1kg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쇠고기 1.0kg, 닭고기 1.5kg, 염소와 토끼·오리고기 등 기타 0.6kg으로 분류됐다고 한다.(관련 자료 <https://www.dailynk.com/%E5%8C%97-%EC%A3%BC%EB%AF%BC-%EC%9C%A1%EB%A5%98%EC%86%8C%EB%B9%84%EB%9F%89-%E5%8D%97%EC%9D%98-15-%EC%88%98%EC%A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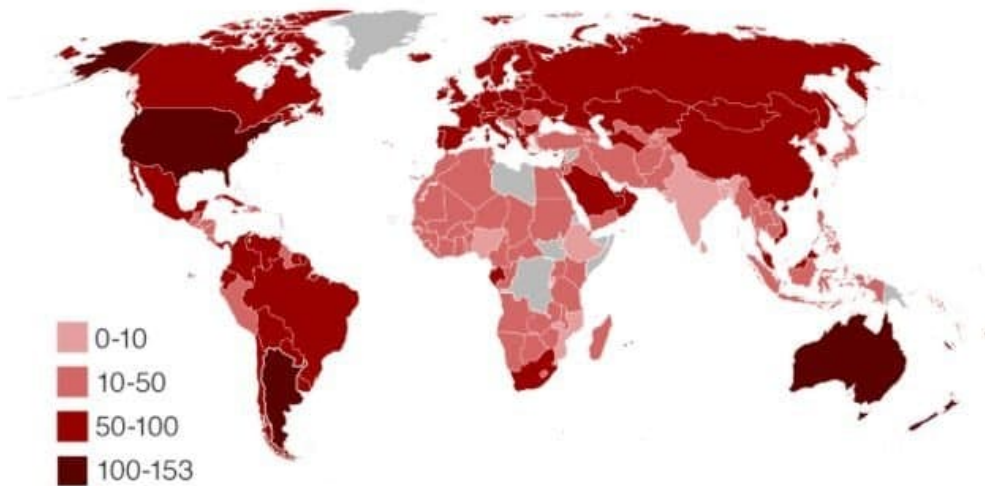
아래 2006년 서울 경제의 자료를 보자.

북한 주민의 육류 소비량이 남한 주민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1.2kg로 남한 주민(49.2kg)의 5분의1 수준이었다. 북한 주민이 소비하는 육류는 지난 2002년의 경우 돼지고기가 8.1kg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쇠고기 1.0kg, 닭고기 1.5kg, 염소와 토끼·오리고기 등 기타 0.6kg으로 분류됐다.

(관련 자료 <https://www.sedaily.com/NewsView/1HMN9AUGUR>)

## Who eats the most meat?

Meat consumption (kg per person per year)



Sourc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Our World in Data

BBC

심지어 우익 언론인 미국의 소리(VOA) 2005년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지난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북한의 1인당 육류 섭취 증가율이 세계 4위를 기록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1인당 육류 섭취 절대량은 개발도상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AO**가 18일 발표한 ‘2009 세계식량농업백서’(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09)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1995년에는 1인당 육류 8.1kg을 섭취했으며, 2005년에는 14.6kg을 섭취해 매해 6% 섭취율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1인당 육류 소비가 가장 크게 늘어난 나라는 버마로 1995년에는 1인당 8.2kg, 2005년에는 23kg을 섭취해 연간 10.8% 증가했습니다. 연간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나미비아로 7.4%, 세 번째로 높은 나라는 6.4%를 기록한 베트남이었습니다.(중략) 2005년 당시 북한 주민들은 1인당 육류 14.6kg을 섭취했으나, 이는 개발도상국의 평균인 30.9kg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이때 1인당 82.1kg의 육류를 섭취했으며, 한국 국민들은 1인당 48.9kg을 섭취했습니다.

(관련자료 <https://www.voakorea.com/a/a-35-2010-02-22-voa6-91420714/1330526.html>)





북한의 육류 소비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육류 소비를 못하고 사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도 1980년대 대한민국 수준으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북한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최소 15~18kg 이상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제발전을 급격히 하던 1980년대 한국의 육류 소비량은 1980년에 11kg이었고, 1985년에는 16.5kg이었으며, 1990년에는 19.9kg이었다. 이러한 추산을 보았을 때, 북한이 고기를 아주 못먹는다는 건 성립할 수 없다.

2020년 KBS에서 하는 페이스북 프로그램을 보면, 북한의 육류 소비량이 김정은 시대에 들면서 육류 소비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https://youtu.be/JeZUp8ziQE4>

이 영상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북한에서 시장을 통해 다양한 육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된게 3~4년이 되었고, 김정은 시대 들어 육류 소비가 많이 늘었고, 소고기 소비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어찌됐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건 북한에서도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한 종편의 탈북자들은 그런 거짓말들을 양산해내고 있으며, 자칭 트위터 방구석 역덕들도 그런 헛소리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선전에서 벗어나 북한의 식량 사정을 좀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할 필요성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 글을 통해 이성적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을 판단하길 기대해본다.